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중국 FDI 유입,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DI Inward, export
and employment in China

指導教授 俞日善

2008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蘇寧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2
제3절 연구구성.....	2
 제2장 중국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현황.....	4
제1절 중국의 무역현황과 정책변화.....	4
1. 중국의 무역현황.....	4
2. 무역정책의 변화.....	9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현황과 정책변화.....	15
1. 중국 FDI의 현황.....	15
2. 중국의 FDI정책변화.....	18
 제3장 FDI유입, 수출이 고용과 경제성장 관계.....	21
제1절 무역과 경제성장.....	21
제2절 경제성장과 FDI역할.....	22
제3절 FDI유입, 수출과 고용.....	23
1. 잉여분출설.....	24
2. Lewis 모형.....	26
제4절 중국의 잉여노동력.....	29
 제4장 실증연구.....	32

제1절 추정모형	32
제2절 자료수집	34
제3절 실증분석과 해석.....	35
1. 추정결과	35
2. 해석	37
제5장 결론.....	39
<참고문헌>.....	40
<부표>	42

표 목차

- <표2-1>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
- <표2-2>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2004)
- <표2-3> 지역별·국가별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와 수출의 비중
- <표2-4> 중국의 GDP, 무역, 고용인구
- <표2-5> 개혁 전후 중국의 무역체제 비교
- <표2-6> 중국의 1980년대 무역체제개혁의 주요내용
- <표2-7>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 <표2-8>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70-2003)
- <표2-9> 중국 GDP, 무역총액과 FDI
- <표2-10>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 <표2-11> FDI가 수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표2-12> 추정결과

그림목차

<그림3-1> 잉여노동이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익

<그림3-2> 농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

<그림3-3> 제조업부문의 한계생산물곡선과 고용량

<ABSTRACT>

China's economic performance is impressive since it reformed and opened up its economy in 1978. This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achieved an average annual real growth rate of around 9.5% over the period 1978-2005.

A lot of economist has made statements that FDI inflow and international trad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Chinese growth process. Given two decades of remarkable export growth and a mixed economic growth performance, it is pertinent to ask: what is the impact of FDI inflow and export on increasing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deal with this economic phenomenon, two theories connected to that are introduced. One is 'vent for surplus' which was originally initiated by A. Smith and refined by H. Myint. It gives us a good economic accou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inflow, export and economic growth. The other one is 'Lewis model' which makes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inflow, labor migration from agricultural sector to manufacturing sector and economic growth.

To make sure that such things as two theories suggested has taken place in China, I attempted to make an empirical test. with the result of the test, I found as follows.

First, FDI mostly invested in manufacturing sector was combined with low wage labor.

Second, most of goods produced in manufacturing industry was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consumed in the domestic market.

Third, there is a transmission mechanism that FDI inflow increased the employment which led to increasing manufacturing goods and contributed to increasing expor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중국은 1978년에 모택동의 계획경제하의 중화학중심 경제체제에서 덩소핑의 시장경제하의 경공업중심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전환은 개혁 개방정책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이후 중국은 극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10%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05년 현재 GDP규모 세계 4위, 교역규모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¹⁾

개혁개방정책은 크게 개혁정책과 개방정책 두 개의 정책으로 나뉜다. 개혁정책의 핵심은 자율권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제이다. 즉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하에 농업 및 비농업분야²⁾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시지역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해 이윤상납제 대신 이윤유보제를 실시하여 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비국유기업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계획경제 밖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손실과 이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쟁체제가 상품시장에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런 경쟁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당정을 분리하고 권력의 분권화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 개방정책의 핵심은 수출촉진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이다. 즉 상품수출, 관광수입과 외국자본 직접투자 등을 통해 대규모 외화획득이 가능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중국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외자의 활용과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상품 및 기술의 도입은 중국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체제개혁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면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즉 개혁이 무역회사의 자율권확대를 가져와 개방을 촉진하고 이러한

1)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적요에서 1979-2005년간 연평균 GDP성장률 9.5%로 계산함

2) 중국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의 각종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을 향진기업이라 한다.

개방촉진은 무역과 외국직접투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권 촉진하였다.

개혁정책과 개방정책 어느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에 더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론이 많지만³⁾ 1978년에 공포한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그래서 본 논문은 대외개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 특히 수출확대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어떻게 고용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제2절 연구방법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은 경제체제개혁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어서 서로 얽히면서 추진되었다. 즉 개혁이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이 개혁을 확대시키면서 중국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개혁과 대외개방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외개방정책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수출촉진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어떤 경로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한다. 즉 A. Smith와 Myint(1958)의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과 Lewis의 모형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 유입, 수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이 이론들의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론이 제시한 것처럼 중국 경제성장에서 수출과 유입해외직접투자가 실제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본다.

제3절 연구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정리

3) 나카가네 카즈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제8장 대외무역과 경제발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FDI유입이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관계된 구체적인 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3장의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정결과를 가지고 경제적 해석을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제2장 중국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1절 중국의 무역현황과 정책변화

1. 중국의 무역현황

지난 반 세기동안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어떤 지역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우선 일본의 급속한 성장에 이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뒤를 이었고,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표2-1>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

		일인당 국민소득 (1999)	GDP 연평균성장률		개방도	
			1980-90	1990-99	1990	1997
일본		32,230	4.0	1.4	20.7	21.7
중국		780	10.1	10.7	26.9	41.5
NICS	한국	8,490	9.4	5.7	60.1	77.0
	대만	-	7.9	6.3	88.4	95.7
	싱가포르	29,610	6.7	8.0	386.4	311.9
	홍콩	23,520	6.9	3.9	260.1	264.2
ASEAN	인도네시아	580	6.1	4.7	49.9	56.2
	태국	1,960	7.6	4.7	75.8	93.4
	말레이시아	3,400	5.3	6.3	150.6	188.3
	필리핀	1,020	1.0	3.2	60.8	108.4
	베트남	370	4.6	8.1	59.8	100.3
세계		4,890	3.2	2.5	31.5	36.2*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 1998년 전세계 수출입액을 99년 전세계 GDP로 나눈 값임.

동아시아 경제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개방도를 <표 2-1>에 정리하였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이처럼 동아

시아 국가에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등 신흥공업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이 섞여있다.

그런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동아시아 지역내의 국가들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업국(NICS) 4개국은 80년 이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ASEAN 국가들도 1980-90 기간동안의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1980년 이후 세계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중국은 198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표2-2>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2004)

<i>Region/country</i>	<i>1960-1965</i>	<i>1965-1970</i>	<i>1970-1975</i>	<i>1975-1980</i>	<i>1980-1985</i>	<i>1985-1990</i>	<i>1990-1995</i>	<i>1995-2000</i>	<i>2000-2004</i>
Africa	5.4	4.9	4.4	3.8	2.2	2.6	1.1	3.4	3.9
Sub-Saharan Africa, excl. South Africa	3.9	3.9	3.9	1.9	1.7	3.2	1.5	3.7	4.2
Latin America	4.6	5.8	6.6	5.1	0.5	1.8	3.6	2.8	1.5
East Asia	5.0	7.5	6.8	7.6	7.1	8.2	8.8	4.9	6.2
China	2.1	5.3	5.1	6.1	11.0	7.8	12.9	8.5	9.4
First-tier NIEs	8.0	9.8	8.3	9.0	7.1	9.1	7.3	4.2	3.8
South Asia	4.5	4.9	2.3	3.6	5.3	5.9	5.0	5.3	5.7
India	4.2	4.9	2.4	3.0	5.3	6.6	5.3	5.8	6.1
Developing countries	4.8	6.0	6.4	5.1	2.9	4.3	5.4	4.1	4.4

자료: UNCTAD(200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p46

주:GDP는 1995년 기준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함

<표 2-2>는 개도국 들 중 1980년 이후 중국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 평균 경제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성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개방정책과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표2-1>을 보면 동아시아 국가의 개방도는 매우 높다. 개방도는 GDP에 대한 무역량(수출+수입)의 비율이며, 이 값이 높을수록 대외거래가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국가의 개방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개방도가 100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 경제가 무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80년대에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과 베트남 경제의 개방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개방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표2-3>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직후인 1980년에 1.0으로 브라질이나 멕시코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이다. 그러나 1980년도 비교하면 2003년 현재 브라질은 거의 변화가 없고 멕시코는 2.7배 정도인데 비해 중국의 세계시장에서 수출비중은 6.5배 확대되었다.

<표 2-3> 지역별·국가별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와 수출의 비중

Region/economy	Share in world manufacturing value added				Share in world exports of manufactures ^a			
	1980	1990	2000	2003	1980	1990	2000	2003
Developed countries ^b	64.5	74.1	74.9	73.3	74.1	77.9	67.3	65.4
Developing countries	16.6	17.0	22.8	23.7	18.9	18.3	28.9	29.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7.1	5.6	5.4	4.4	4.3	2.4	4.7	4.1
Argentina	0.9	0.8	0.8	0.5	0.2	0.3	0.3	0.3
Brazil	2.9	2.2	1.1	0.9	0.8	0.8	0.8	0.8
Chile	0.2	0.1	0.2	0.2	0.2	0.2	0.2	0.2
Mexico	1.9	1.1	2.0	1.7	0.8	0.5	2.7	2.2
South and East Asia	7.4	8.7	15.2	17.2	7.6	13.6	21.7	22.7
China, Taiwan Province of	0.6	1.1	1.3	1.1	1.3	2.3	2.7	2.3
Republic of Korea	0.7	1.4	2.2	2.3	1.1	2.2	3.1	3.0
ASEAN-4	1.2	1.5	2.4	2.8	1.0	2.0	4.2	3.7
Indonesia	0.4	0.5	0.9	1.1	0.2	0.4	0.8	0.6
Malaysia	0.2	0.2	0.5	0.5	0.4	0.7	1.6	1.5
Philippines	0.3	0.2	0.3	0.3	0.2	0.2	0.7	0.5
Thailand	0.3	0.5	0.7	0.8	0.2	0.6	1.1	1.1
China	3.3	2.6	6.6	8.5	1.0	1.7	4.3	6.5
India	1.1	1.1	1.2	1.4	0.3	0.5	0.7	0.9
Africa	0.9	0.9	0.8	0.8	5.4	2.6	1.8	2.0

자료: UNCTAD(200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p181

국가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1952년에 겨우 679억위엔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8.2 조위엔으로 증가하였다. 물가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8.72% 정도 성장해 온 셈이다. 이 성장률은 같은 시기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인 3%보다 훨씬 높다.

<표 2-4> 중국의 GDP, 무역, 고용인구, 임금의 변화

연도	고용인구 (백만)	1인당 (달러)	무역액 (억달러)	수출액 (억달러)	수입액 (억달러)	GDP (억달러)	무역/GDP (%)	임금지수 (77=100)
1978	401.5	212	206.4	97.5	108.9	2044	10.1	106.8
1979	413.1	223	293.3	136.6	156.7	2167	13.5	108.8
1980	423.6	247	381.4	181.2	200.2	2423	15.7	114.1
1981	437.4	228	440.2	220.1	220.2	2276	18.9	109.8
1982	450.1	221	416.1	223.2	192.0	2244	18.2	110.5
1983	463.1	231	436.2	222.3	213.9	2365	18.4	108.3
1984	476.1	228	535.5	261.4	274.1	2357	21.9	113.6
1985	498.7	253	696.0	273.5	422.5	2649	26.3	117.9
1986	512.8	256	738.5	309.4	429.0	2717	28.3	116.6
1987	527.8	272	826.5	394.4	432.2	2934	28.2	109.3
1988	543.3	340	1027.8	475.2	552.7	3722	27.6	119.9
1989	553.3	374	1116.8	525.4	591.4	4164	26.8	110.8
1990	647.5	269	1154.4	620.9	533.5	3073	37.6	110.6
1991	654.9	318	1357.0	719.1	637.9	3678	36.9	109.3
1992	661.5	370	1655.3	849.4	805.9	4341	38.2	115.9
1993	668.1	460	1957.0	917.4	1039.6	5446	35.9	124.3
1994	674.6	424	2366.2	1210.1	1156.2	5082	46.6	134.6
1995	680.7	571	2808.6	1487.8	1320.8	6913	40.6	121.2
1996	689.5	666	2898.8	1510.5	1388.3	8154	35.6	112.9
1997	698.2	730	3251.6	1827.9	1423.7	9020	36.0	104.2
1998	706.4	770	3239.2	1837.6	1401.7	9609	33.7	106.6
1999	713.9	787	3607.0	1949.0	1658.0	9912	36.4	111.6
2000	720.9	853	4743.0	2490.0	2353.0	10800	43.9	112.3
2001	730.3	909	5098.0	2667.0	2431.0	11590	44.0	116.0
2002	737.4	963	6208.0	3256.0	2752.0	12371	50.2	114.3
2003	744.3	1091	8512.0	4385.0	4127.0	14099	60.4	113.2
2004	752.0	1269	11548.0	5936.0	5612.0	16494	70.0	114.1
2005	758.3	1701	14221.0	7623.0	6598.0	22248	63.9	114.6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중국통계국 사이트(www.stats.gov.cn)

2006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1인당 GDP 역시 1978년 212달러이던 것이 2005년에는 1701달러로 30년도 채 되지 못하여 7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8년에는 206억달러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4,221억 달러로 70

배 이상 증가하여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78년 무역의 준도가 10%정도였으나 2005년 현재 63.7%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무역이 활성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대규모의 대외무역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저자들 사이에 논란은 있지만⁴⁾ 중국의 성장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방정책과 수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된 제조업의 성장 덕분이라는 설명에는 이론이 없다. 즉 중국은 개방정책을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고,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수출의 확대를 통해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그 동안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부분의 수출공산품이 외자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또한 외국기업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그리고 간접투자이든 직접투자이든 대부분은 향진기업이거나 비국영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92년과 1993년에 중국의 생산량 중 10%를 점유하지 못한 외자기업이, 수출확대에 있어서는 약 3분의 2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증가는 주로 향진기업의 가공수출에 의한 것이다. 1992년에 중국국영기업은 공산품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였지만, 수출확대에는 미미한 기여를 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점은 대규모의 외국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과 유입 해외직접투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이 경제성장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증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역과 성장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Jung and Marshall(1985)의 연구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Chow(1987)는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출과 경제성장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Lewis(1980)는 수출을 성장의 원동력(engine of growth)이라고 하였다. 나카가네 카즈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참조

2. 무역정책의 변화

(1) 개혁 이전 무역체제

현대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외국과의 교역에 관련된 조직형태, 관리권한, 경영분업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이러한 중국무역정책의 내용은 그 동안 개혁을 통해 변화했다. 그것은 곧 무역체제 성격의 변화하였음을 뜻한다. 개혁 전후에 달라진 중국 무역체제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표2-5>과 같다.

<표2-5>개혁 전후 중국의 무역체제 비교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조직형태	국가 독점적 국영무역	기업의 자율적 무역조직 인정
관리권한	중앙집권적 통일관리	지방 분권적 범위 확대
경영분업	생산과 판매의 분리	생산과 판매의 통합 촉진
이익분배	노동인민의 이익 우선 분배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 인정

현대 중국의 개혁 이전 대외무역체제는 옛 소련의 중앙집권적 소비에트형 체제였다. 소비에트 무역체제란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고 국가계획에 의해 무역이 관리되는 국가독점무역체제를 말한다.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진 1990년까지도 소비에트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무역의 정의는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노동인민의 이익을 모색하는 사회주의 성질의 국가독점무역”이었다.⁵⁾

현대 중국 초기의 대외무역은 내용적으로 국내상업과 구분되지 않았으며, 그 관리조직은 중앙정부의 무역부 산하에 설치된 몇 개의 국영 대외무역회사들이 수출입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였다. 그 후에 무역부는 대외무역부와 산업부로 분리되고, 종전의 국영 대외무역회사는 교역상품의 종류에 따라 15개의 “외무전업진출구총공사”(外貿專業進出口總公司), 즉 대외무역전문업종별 수출입회

5) 오용석(1990)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p.58

사로 재편되었다.

그 때 중국의 무역은 대부분 같은 체제를 가진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교역은 매년 한 번 씩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당시 중국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사회주의권의 역내무역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쳤다. 무역전문업종별 회사들은 국가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외국상사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수출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체제상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체제개혁 이전의 중국무역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행정관리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국가정책의 통일성, 계획의 일사불란성, 대외관계의 이념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경제원칙으로 중요시된 것은 물적 균형이 고작이었다. 당시 동서진영간의 첨예한 이념대립의 갈등구조 아래서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무역은 순탄하지 않았다. 더욱이 친콰(Chincom)와 코콰(Cocom)에 의해 서방국가들의 공산권과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압력에 대항하여 무역을 외교적 투쟁과 연계시켰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2) 1980년대의 개혁

중국은 1970년대 부분적 무역체제개혁의 실험과정을 거쳐 1980년대는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국의 무역체제개혁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86년에 중국이 GATT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체제 개혁은 더욱 가속화하였다. 1980년대 중국무역체제 개혁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제도 개편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의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여 대외무역확대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979년에 국무원에 “수출입관리위원회”와 “외국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업무를 맡는 정부부처는 대외무역부와 신설된 두 위원회만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대외경제연락부와 국가외자관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외경제무역기구들의 난립으로 의사

결정권이 분산되어 정책집행의 혼란이 가중되고 업무중복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도 컸다. 그리하여 1982년 3월 전인대 의결을 통해 이들 모든 대외경제관련 기구들은 “대외무역경제부”로 통합되었다.

<표2-6> 중국의 1980년대 무역체제개혁의 주요내용

개혁내용	목표	구체적 개혁 조치
정기분개(政企分開)	정부와 기업의 기능분리로 대외무역의 행정관리 강화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와 대외무역부 전문 국에 의한 무역기업의 관리
간정부권(簡政放權) 방개경영(放開經營)	정부의 무역관리권 이양과 경영확대로 무역기업경영의 적극성 유도	모든 경제부처에 무역회사 또는 대외청부공정회사 설립 및 경영권 부여
추행대리제	대외무역경영대리제의 실시로 무역회사의 대외무역경영관리 개선	수출입대리제와 전면적인 수입경영대리제 실시
공무결합 기무결합 진출구결합	공업과 무역, 기술과 무역 및 수출입의 결합으로 계획의 간소화와 무역업무의 효율성 제고	생산 및 기술개발 회사에 무역기능 확대
자부영휴	손익의 자기책임원칙의 대외무역 재무체제 개혁으로 경제조정 수단의 강화	무역경영기업 독립채산제 실시

자료: 오용석 “중국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제9권 제2호 p.246

그 이후의 무역체제개혁은 대외경제무역부와 국무원이 앞장섰다. 대외경제무역부는 1984년 9월 15일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대외무역체제개혁 의견보고”⁶⁾를 발표하였다. 국무원은 대외경제무역부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무역체제개혁의 원칙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그 것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 보고되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다.⁷⁾

6) 李志寧 (1987) “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p.624

7) 王紹熙 (1990) “中國對外貿易理論和政策” (北京 中國經濟貿易出版社) p.58

1980년대 중국 무역체제의 제도적 개혁을 포괄하는 그 전체적인내용을 종합하여 요약정리하면 <표2-6>과 같다.

(3) 1990년대의 개혁

1990년대 이후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기본 목표와 방향은 이러한 경제체제의 범주 안에서 설정되었다. 이때의 무역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준국가독점무역의 형태였다. 1990년대 개혁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특히 무역체제 개혁은 중국의 WTO 가입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를 전제로 하여 추진되었다. 1990년대 중국무역체제개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확정한 것은 1992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였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5개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것은 첫째 대외개방 지역의 확대, 둘째 대외무역관리제도개혁의 심화,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부문의 확대와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넷째 새로운 국제시장의 개천과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다섯째 품질우선주의를 통한 수출상품 품질의 제고 등이다.

(4) WTO가입 후 무역체제개혁

중국의 WTO 가입 후 무역체제개혁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WTO규범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2조(무역제도의 실시)가 바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a. WTO협정에 속하거나 WTO협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조치에 대한 일관성 유지, b. 국내 여러 지역과 특수경제구간의 횡적 차별이나 중앙과 지방간의 종적 차별이 없는 일관성 있고 공장하며 합리적 관리체제, c. 법규와 제도상의 투명성, d.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이다.

그 동안 중국의 중요한 정책전달체계는 계획경제체제의 관행으로 남아 있는 “홍두문건”으로 불리는 내부분서였다. 내부분서에 의해 주요 정책에 관한 지령과 조치가 하달되고 국무원 각부 장관들의 업무처리는 내부분서에 근거한 심사비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업무처리 관행에서 무역에 관한 정책의 공개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이전 중국의 법체

제도 중앙과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그 것은 중앙과 각 지방이 이기주의적으로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WTO 가입 3개월 후부터 공포되는 모든 법규와 조치는 더 이상 공개함이 없이 시행되지 않는다.⁸⁾ 공포된 법규와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 기업 또는 WTO 구성원의 요구시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제공되고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45일 안에 답변이 주어져야 한다. 내국민대우와 WTO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법규와 조치는 모두 폐지되거나 정지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법규들은 중앙정부의 직권으로 정비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의의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민간무역의 확대로 무역체제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사라지는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무역은 대부분 국유부문에 의한 무역, 즉 국영무역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역체제에서 사유부문인 민간무역의 확대는 중요한 탈 이데올로기적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민간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 자유무역체제에서 민간무역에 대한 사회주의 방식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국영무역도 WTO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회주의적 통제메커니즘의 작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GATT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WTO체제 아래서 국영무역은 비교적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도 국유기업의 모든 무역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행정규제와 수출가격통제를 할 수 없다. 중국의 국영무역상품 중 밀, 옥수수, 쌀, 보리, 면화, 콩기름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교역통제는 2005년까지 폐지되고 그 대신 민간부문 무역권이 허용된다.

WTO가입협상에서 합의된 일정표에 의하면, 2002~2005년은 중국의 무역체제가 연차적으로 WTO체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8)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2002 (북경 중국물자출판사) p.104, p.235, p.249

<표2-7>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구분	WTO가입 이전		WTO 가입 이후	
	1979년-1992년-2001년		2002년-2005년-2015년	
무역체제의 특성	국가독점무역	준국가독점무역	준보호주의적 무역체제	준자유 및 공정 무역체제
계획과 시장관계	계획 주, 시장 종	시장 주, 계획 종	준시장경제	시장경제
가격체제	국정가격제	다중가격제	준시장가격	시장가격
정책결정 기관	공산당·국무원	국무원·공산당	국무원	국무원
정책의 투명성	불투명(내부문건)	불투명성 약화	투명성 증가	비교적 투명
무역행위의 주체	국영기업	국유·비국유기업(허가제)	국유·비국유기업(신고제)	경쟁에 의해 결정
무역기업경영체제	1기업 1업종 경영	청부경영책임제	업종중심 경영	서구식 경영체제
거래의 지배원리	인치무의	법제화 추진	법치주의 강조	점진적 법치주의로 이행
외자기업 무역권	불허	조건부 허가	생산범위내 허가	허용
서비스부문	미개방	외국인에게 제한적 업무 허용	부분적 개방	대부분 개방

자료: 오용석(2004)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 비교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p.278

2005년 이후부터 중국의 무역체제는 완전히 세계무역체제에 편입되어야 하고 15년 내에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정표가 순조

롭게 지켜진다면, 중국의 WTO가입 후의 무역체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2005년까지 중국이 세계무역체제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무역체제의 요소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그 무역체제는 거의 완전한 시장경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2-7>은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변화

1. 중국 FDI의 현황

<표2-8>은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고 있다. 유입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중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6,000만불에 불과하였지만 2002년 현재 535억불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것은 거의 900배에 가까운 증가로 중국으로의 외국인들이 직접투자 러시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세계1위의 유입국이며 그 액수가 세계 전체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표2-8>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70-2003)

단위:10억불

	유출 FDI						유입 FDI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전세계	14.1	53.7	242.0	1186.8	596.5	612.2	13.0	55.0	208.6	1388.0	678.8	559.6
프랑스	0.4	3.1	36.2	177.4	49.4	57.3	0.6	3.2	15.6	43.2	48.9	47.0
독일	1.1	4.7	24.2	56.6	8.6	2.6	0.8	0.3	2.9	198.3	36.0	12.9
영국	1.8	7.9	17.9	233.4	35.1	55.1	1.5	10.1	30.5	118.8	27.8	14.5
캐나다	0.9	4.1	5.2	44.7	26.4	21.5	1.8	5.8	7.6	66.8	21.3	6.9
미국	7.6	19.2	31.0	142.6	115.3	151.9	1.2	16.9	48.4	314.0	62.9	29.8
일본	0.4	2.4	48.0	31.6	32.2	28.8	0.9	0.3	1.6	8.3	9.2	6.3
중국	—	—	0.8	0.9	2.5	1.8	—	0.06	3.5	40.7	52.7	53.5
싱가폴	—	0.1	2.0	5.3	3.7	5.5	0.09	1.2	5.6	17.2	5.7	11.4

자료:www.unctad.org

그러므로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가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 해외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러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1990년에 중국이 적은 규모이지만 다른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⁹⁾ <표 2-9>는 중국의 GDP, 무역총액과 유입 FDI 총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2-9> 중국 GDP, 무역총액과 FDI

년대	GDP(억불)	경제성장(%)	무역총액(억불)	FDI(억불)
1979년	2,167	7.0	292.6	—
1980년	2,423	6.9	380.4	—
1981년	2,276	3.0	431.3	—
1982년	2,244	7.4	408.0	—
1983년	2,365	9.0	435.3	9.2
1984년	2,357	12.0	516.0	14.2
1985년	2,649	12.5	696.2	19.6
1986년	2,717	7.8	738.0	22.4
1987년	2,934	9.4	827.0	23.1
1988년	3,722	11.2	1,027.9	31.9
1989년	4,164	3.9	1,116.0	33.9
1990년	3,073	5.0	1,154.1	34.9
1991년	3,678	7.0	1,357.0	43.7
1992년	4,341	12.8	1,656.0	110.1
1993년	5,446	13.4	1,958.0	275.2
1994년	5,082	11.8	2,367.0	337.7
1995년	6,613	10.2	2,809.0	375.2
1996년	8,154	9.7	2,899.0	417.2
1997년	9,020	8.8	3,251.0	452.6
1998년	9,609	7.8	3,240.0	454.6
1999년	9,912	7.1	3,607.0	403.2
2000년	10,800	8.0	4,743.0	407.2
2001년	11,590	7.3	5,098.0	468.8
2002년	12,371	8.0	6,208.0	527.4
2003년	14,099	9.1	8,512.0	535.1
2004년	16,494	9.5	11,548.0	606.3
2005년	22,248	9.9	14,221.0	603.3

자료: 中國統計年監 各年度

9) 중국은 유입 해외직접투자를 引來進으로, 유출 해외직접투자를 走出去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2-9>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무역총액과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대만, 홍콩 및 동남아 화상(華商)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된 서구선진국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2-10>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실행액기준, 단위: 억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홍콩	건 수	7,976	10,845	13,633	14,719
	계약액	206.0	827.7	407.2	501.4
	실행액	168.6	527.4	177.0	190.0
일본	건 수	2,003	2,745	3,245	3,454
	계약액	53.5	53.0	80.0	91.6
	실행액	45.8	41.9	50.4	54.5
미국	건 수	2,594	3,363	4,060	3,925
	계약액	75.1	81.6	101.6	121.7
	실행액	48.6	54.2	42.0	39.4
한국	건 수	2,933	4,008	4,920	5,625
	계약액	35.1	52.8	91.8	139.1
	실행액	19.7	27.7	44.9	62.5
버지니아	건 수	1,500	1,959	13,633	2,641
	계약액	87.6	126.5	122.6	193.9
	실행액	50.5	61.2	67.7	67.3

자료: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표2-10>은 국가별 중국의 유입 해외직접투자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 대 중국 투자진출국 중 실제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홍콩이 189.9억 달러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버지니아 67.3억 달러, 한국이 62.5억달러, 일본이 54.5억 달러, 미국이 39.4억 달러로 순서대로이다. 2001년 투자실적을 2004년과 비교할 때 미국 대만의 실행액은 48.6억불에서 39.4억불, 31.6억불에서 31.1억불로 낮아졌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외환위기 기간동안 투자가 감소하다

가 2001년 이후로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정책변화

(1)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책

외국인투자는 대외차관과 달리 외채의 원금상환 및 금리부담이 없고 오히려 국채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고용확대효과와 기술이전효과가 크고 선진경영기업의 도입을 수반한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자 국무원이 서둘러 1979년 7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공포한 것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 법은 중국과 외국의 공동투자에 의한 기업설립과 경영을 규정하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법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곧바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8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업종과 투자기간이 제한되었으며, 비싼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규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직접투자 방식도 외자의 중국유입을 막았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1986년에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은 급격히 줄었다. 이때 국무원이 문제해결에 나섰다. 1986년에 “중외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완화되었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도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고쳐졌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장려 규정”이 만들어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공포되어 이른바 “3자기업”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1990년대에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0년 4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이사장 취임이 가능해지고, 기업자산의 무상몰수제도와 합자기간의 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5월에는 토지 관련법규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외자기업법 시행조례” 공포로 중국은 독자기업의 적극적 유치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고용효과나 기술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독자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통일도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의해 1991년 7월1일부터 3자기업의 소득세율과 감면제도가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제도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을 납부하고 면세, 공제 및 환급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이 외자유치에서 세수의 확보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1995년부터 실시된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도 괄목할만하다. 국무원은 성과 시의 정부에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중국에서 부실기업은 “3무기업”으로 불린다. 3무기업이란 첫째,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기업; 둘째,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 셋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안에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3) WTO 가입 전후의 정책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2000년 10월 31일 “외자기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3자기업 관련법을 잇달아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 요구되던 외환수지균형과 중국산 원자재의 우선조달이 폐지되고, 선진 기술·설비이용 및 수출의 의무는 장려로 바뀌었으며, 등록자본의 감소금지는 허가사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새로운 기업제도의 도입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정책에 관해서는 밑에서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서비스시장 개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86년에 GATT 가입을

신청한 후 읍서버 자격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참가하면서부터이다. 그 때 중국은 GATT가입을 전제로 하여 UR 서비스협상 대상 155개 분야 중 46개 분야를 개방한다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UR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 유통 및 문화·오락·스포츠 분야의 개방이 추가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전에는 서비스부문의 중·외 합작이나 합자투자 대상 선정은 반드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교육은 전 분야에 걸쳐 개방되었고, 전문서비스업은 회계와 변호사업을 제외한 세무·건축공정·도시설계·의료·부동산업의 합자투자와 외국인 지배주주권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취약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지배주주권 단독투자는 대부분 제한적이고 연차적으로 허용되었다.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건축공정과 세무서비스의 외국인 단독투자는 각기 2004년과 2007년 이후 가능하다. TV, 오디오, 영화관, 문화 분야와 교통·운수 분야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한정되었다. 통신서비스와 국가관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은 2005년부터 개방되고 외국은행의 중국 내 인민폐 업무는 2006년 이후에 지방별로 완전 개방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생명보험업과 여행사의 자격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제3장 유입FDI,수출의 고용과 경제성장 관계

제1절 무역과 경제성장

무역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¹⁰⁾ 경제적 성과면에서 보더라도 개방적 경제는 폐쇄적 경제보다 경제성장에 훨씬 효과적이다. 모택동식의 경제개발전략이 1인당 소득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세계로부터 낙후된 데 반해 덩소평식 개방정책은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만 보아도 경제성장에 무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대외개방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한다.¹¹⁾

첫째는 국제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이다. 비교우위에 기초하건 아니건 간에 한 나라는 무역에 의해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고 또 잉여의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후생수준을 높인다. 더욱이 비교우위론 입장에서 보면 국제무역은 전문화의 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다양한 연관효과(linkage effect)를 통해 국내경제를 확대하고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는 부족한 자본의 도입이다.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개도국이 직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부족이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한정될 때 어떻게든 해외자금에 의지해야 한다. 물론 원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 그렇다면 차관과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외국자금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도국이 개방적이면 개방적일수록 해외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기 용이하다.

셋째는 부족한 기술도입이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은 기술수준이 낮고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부족하다. 개도국에 기술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더 이상

10) 김신행 김태기(2005) 국제경제론 참조

11) 나카가네 카즈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 p328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능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국에서 선진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용된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하려고 한다. 이것이 Gerschenkron의 후발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이다. 경제가 국제화되면 해외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뉴스 등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이런 해외정보는 국내에 새로운 욕구를 형성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업가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된다.¹²⁾

넷째는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창출이다. 개도국이 경제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면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광대한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수출지향형의 정책이 유효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이다.

다섯째 경쟁력의 향상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국제시장에 참가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격심한 경쟁을 겪으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제2절 경제성장과 FDI의 역할

FDI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외국무역만큼 진행되어 있지 않지만 Wei(1996)는 FDI결정모델에서 ① 투자국 대외투자의 전체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자본수출에 대한 법적 규제와 유인) ② 상대국의 FDI 매력도에 관계되는 변수(규모, 발전수준, 인적자본의 수준 등과 우대책 등 제도적 조치) ③ 양국의 특정적 요인(쌍무협정, 민족적·언어적·역사적 관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렇듯 FDI의 결정요인은 투자국 측의 푸시(push)요인과 받아들이는 국가측의 풀(pull)요인 등 두 개로 대별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을 염두에 두고 FDI의 풀요인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국의 요소부존의 변화이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하고 비싸지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값싼 중국에 공장을 이전시키려고 한다. 즉 이는 저임금 추구형의 FDI이다. 둘째는 중국의 거대한 국내시장을

12) 지금까지 선진국의 소비형태를 개도국 사람들이 흉내냄으로써 저축을 고갈시킨다는 것이었다(전시소비효과).

찾아 그리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각종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입제한이 없어도 기업이 중국시장에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즉 시장기대에 기초한 FDI이다. 셋째는 중국에 풍부한 원료가 있을 때 원료 수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중국이 자국보다 세계 등의 측면에서 좋은 조건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은 비용절약이 된다. 각종 기업에 대한 앙케이트조사에 의하면 이상 네가지 요인 중에 중국에 대한 FDI의 주요요인은 저임금과 시장기대인데 1990년이후에는 저임금보다는 시장기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¹³⁾

자본유입국인 중국측에서 보면 FDI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① 투자자금의 도입 즉 부족한 국내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효과이다. ② 선진적 기술도입, 말하자면 합병과 100% 자회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자본설비에 포함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조작기술도 전수해준다. ③ 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즉 중국기업개혁에도 공헌하다. ④ 고용확대 ⑤ 외화획득효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FDI의 역할은 변화한다. 초기에는 투자자금과 외화획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직접투자라도 환영받았다. 그러나 차츰 FDI를 선별하게 되어 중국이 중시하는 산업과 업종, 특히 첨단산업분야의 직접투자가 중시되고 있다.

FDI의 효과는 앞서 기술한 다섯 가지 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다섯가지의 직접적인 효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외자가 들어옴으로써 중국 국내의 성장, 수출과 FDI라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제3절 유입FDI, 수출과 고용

제1절과 제2절에서 무역, 특히 수출과 FDI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존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Myint의 잉여분출설과 Lewis 모형을 통해서 수출과 FDI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용증가와 경

13) 푸시요인으로 자국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자국에 생산요소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모회사를 따라 부품제조 자회사가 나가야만 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진출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제성장에 영향을 보여주는가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1.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

정태적 무역이익외에 무역이 잉여자원을 이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A.Smith는 주장하였다.¹⁴⁾ 무역을 하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어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확대는 수출증가를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분의 토지나 노동 등 잉여 생산요소가 사용된다.

Myint(1958)는 이러한 Smith의 논리를 발전시켜 잉여분출설로 정립하였다. 이 이론은 무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여분의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무역이 시작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입규모가 확대된다. 이때 수출증가를 위해서 잉여자원을 생산활동에 생산요소로서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잠재적인 생산력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무역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서 국내수요 이상의 여분의 생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잉여자원이 분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¹⁵⁾

Myint의 잉여분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잉여분출설은 완전고용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교우위이론¹⁶⁾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고 완전고용상태에서 균형이 이룩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이 노동에 비해 많으면 노동한계생산물 더 높아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또한 노동이 자본에 비해 많으면 노동생산물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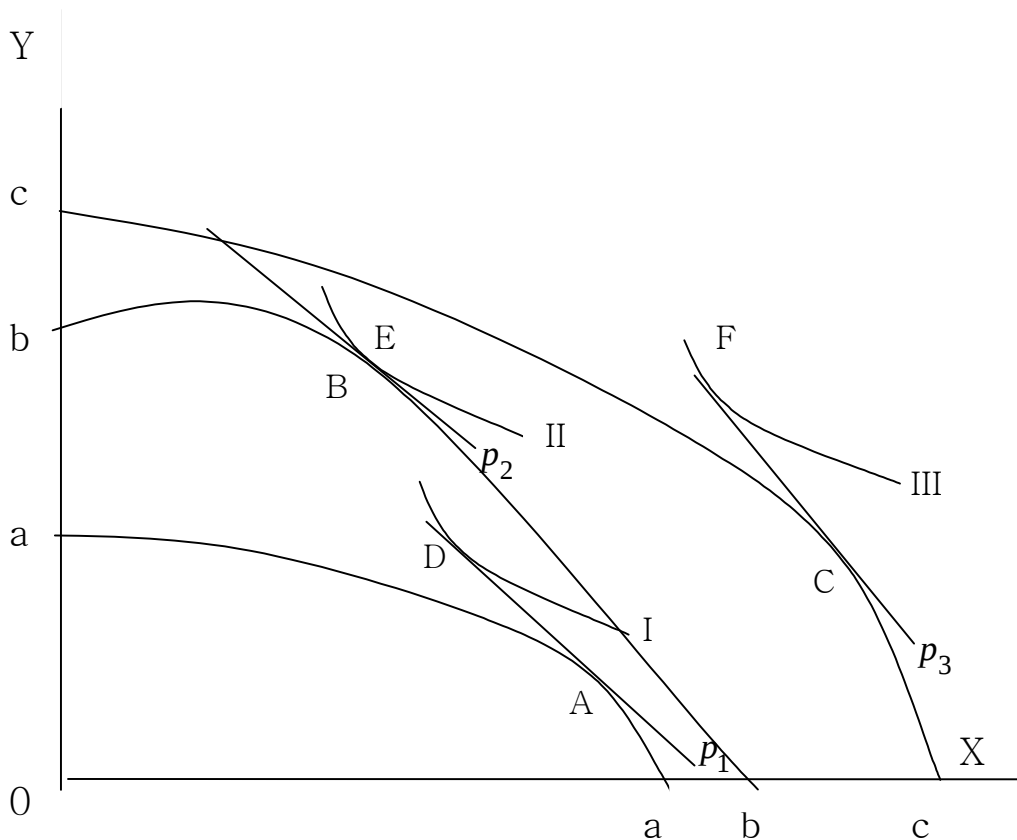
14) Smith의 동태적 무역이익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역이 시장확대를 가져오면 분업이 촉진된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것은 무역이 공급측면에 작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고용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15) Myint는 Smith이론이 정태적 무역이익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비판하고 당시 주목하지 않았던 무역이 잉여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동태적 무역이익을 강조하였다.

16) 전통적인 비교우위이론은 D. Ricardo이론과 Heckscher-Ohlin-Samuelson이론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생산기술의 차이에서, 후자는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비교우위를 끌어내고 있다.

낮아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격기구가 잘 작동되면 산업간 노동이동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고용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가격기구는 잘 작동되지 않고 완전고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국내시장구조의 왜곡으로 투자자원에 대한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잉여자원으로 존재한다.

<그림 3-1> 잉여노동이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익



셋째, 잉여분출설은 잉여자원에 외자유입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런 외국투자는 가용자원의 생산력확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교통, 정보, 통신, 마케팅 부문을 발달시키고 비가용자원을 이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넷째, 경제에서 잉여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에 본 바와 같이 최종재의 과잉공급이 아니라

최종재의 유효수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생수요인 생산요소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잉여자원이 존재한다.

<그림3.1>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개방경제하에서 잉여자원이 어떻게 분출하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자본, 노동 2개의 생산요소와 두 개의 재화(X재, Y재)가 존재하는 세계를 상정하자. 여기서 X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재는 자본집약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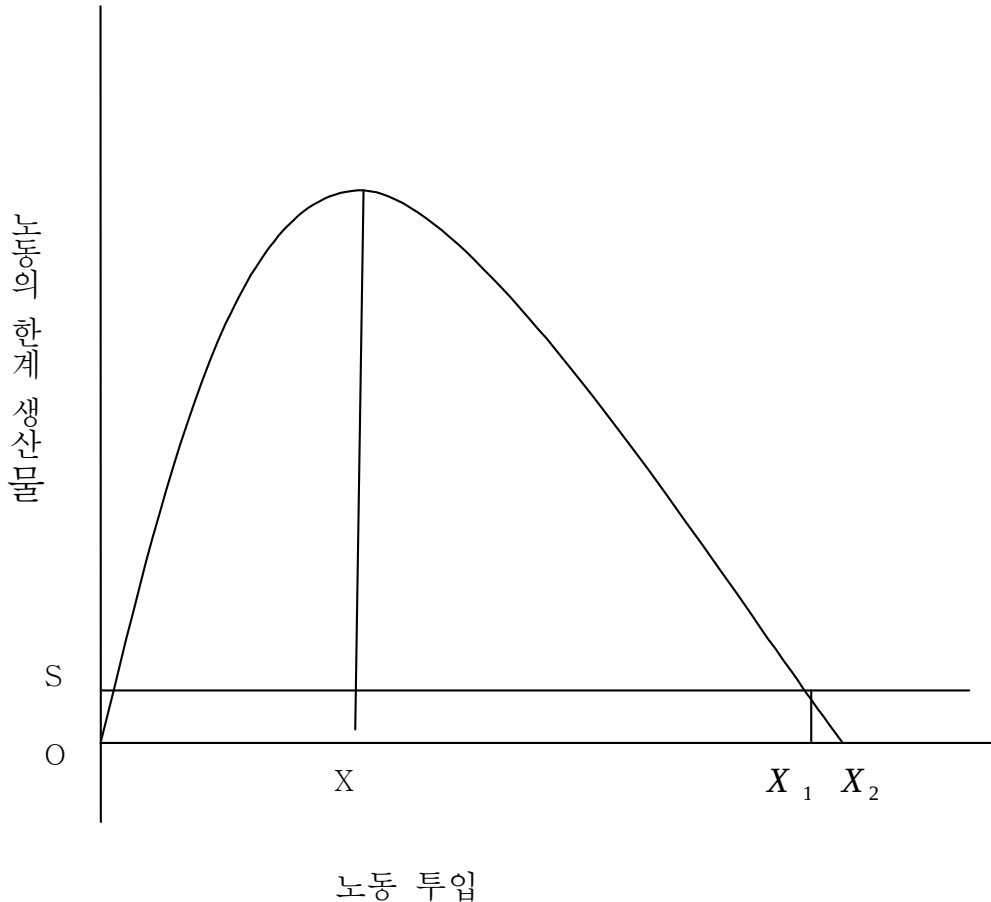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을 전제하면 생산가능곡선은 aa처럼 원점에서 오목한 형태를 취한다. 이때 국제시장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이 P_X 이라고 하면 이 국가는 A점에서 생산하고 D점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bb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가능곡선은 Y재가 자본집약재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때 Y재 쪽으로 편향되게 그러진다. Rybczynski정리에 의해 국제가격이 일정할 때(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자본의 증가율보다 자본집약재인 Y재의 생산량의 증가율이 더 높게 그리고 노동집약재인 X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E점이 된다. E점이 지속적인 균형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잉여노동이 생산에 투여하게 되면 생산가능곡선은 cc로 확정된다. 그것은 X재가 노동집약재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X재 편향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이 확장된다. 이 경우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C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F점에서 소비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DI가 이루어지기 전인 생산점 A와 FDI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생산점 C를 비교하면 FDI는 고용증가를 통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증가는 소비점을 D점에서 F점으로 상승시키고 무역확대를 가져온다.

2. Lewis 모형

FDI, 수출, 고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살펴본 잉여분출설과 별도로 FDI, 고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Lewis 모델이다. 이 이론은 무역과 관련없이 위장실업¹⁷⁾이 존재하는 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

문으로 노동이 이동함으로써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림3-2> 농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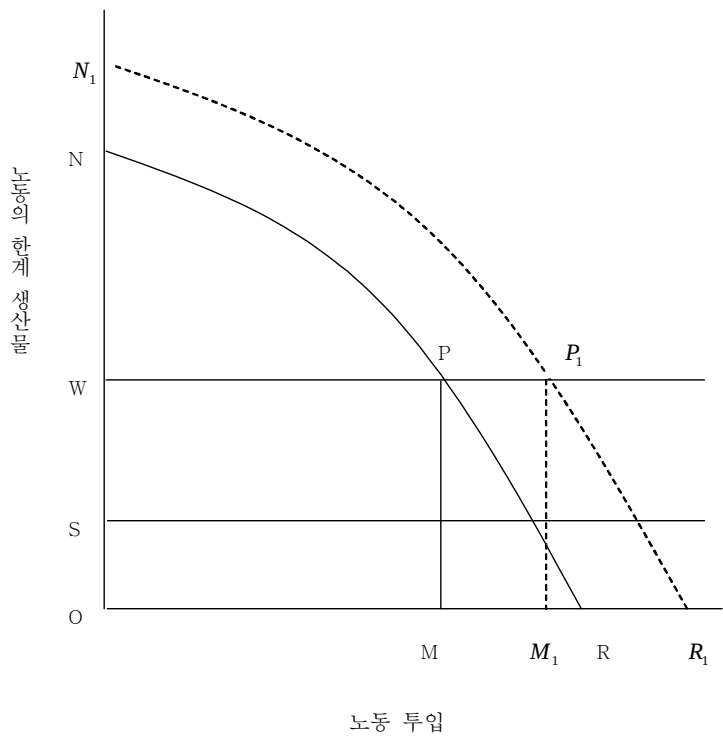
먼저 Lewis 모형은 생계부문(농업부문)에서 노동공급이 무한대라는 전제로 출발한다. 노동공급의 무한대란 농촌지역에서 노동공급곡선이 생계비 수준에서 수평선이 된다. 즉 최저 생계유지임금수준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한다. 노동한계생산물은 생계유지임금수준과 같거나 적게 된다. 그래서 생계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여도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17) 임금이 생계비수준일 때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한 만큼의 노동량을 말하고 대부분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0에 가깝다.

있다.

노동의 투입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은 <그림 3.2>와 같다. 일정한 토지량에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OX 가 된 이후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생계유지임금이 S 이면 노동고용이 OX_1 일때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 노동고용이 OX_1 을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생계유지임금이하로 하락하고 노동고용이 OX_2 를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즉 OX_2 를 넘어서 노동고용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0일 때 생계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노동을 이동시켜도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부문의 어떤 생산량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0이 된다.

<그림3-3> 제조업부문의 한계생산물곡선과 고용량



<그림 3.3>은 제조업부문의 노동투입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곡선 NR은 제조업부문의 노동한계생산물, OW은 제조업부문 임금, OS는 생계유지임금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설을 적용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임금이 동일한 P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노동을 OM만큼 고용했을 때 노동의 총생산물 ONPM은 노동의 임금으로 OWPM, 자본가의 소득으로 WNP만큼 나뉘어 분배된다.

FDI가 제조업부문에 이루어지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3-3>에서 보듯이 한계생산물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이것이 곡선 M_1R_1 이다. 제조업부문 임금(W)이 일정하면 제조업부문은 MM_1 만큼 노동고용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만큼의 노동량은 농촌부문의 위장실업자들이 도시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농촌부문의 위장실업의 도시 제조업이동은 기회비용이 0이기 때문에 농촌부문의 생산량 감소없이 도시 제조업에서는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이 P_1M_1 만큼 증가한다. 이때 자본가의 소득은 WNP에서 MM_1P_1 로 확대되며 이것이 다시 제조업에 재투자된다면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은 이동하고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Lewis 모형과 잉여분출설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wis모형은 자급자족 경제와 제조업부문에서 완전고용이라는 가정했다. 둘째 노동이 농촌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할 때 교통 정보통신부문에서 특별한 기술진보없이 그 수준이 일정하다. 셋째 농촌부문에서 노동이 남아도는 이유는 최종재에 대한 수요부족이 아니라 관련토지의 상대적인 부족 때문이다. 넷째 일단 자원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투자자원이 잉여상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이 농업부문에서 임금은 생계비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제조업부문 총수익에서 전체 노동자의 생계비수준의 임금을 제외하면 자본가의 이윤이 남게 된다.

제4절 중국의 잉여노동력

앞에서 소개한 두 경제이론에서 수출과 FDI가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려면 중국의 농촌부문에 잉여노동력이 존재해야 한다. 농촌의

잉여노동력에 대한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표3-1>은 잉여노동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3-1> 중국의 도시화 진전

단위:만명

	1952	1978	1985	1990	1996	2003
인 구	57,482	96,259	105,851	114,333	122,389	129,277
농촌인구	50,319	79,014	80,757	84,142	86,437	76,851
도시인구	7,163	17,245	25,094	30,191	35,950	52,376
도시화	12.5	17.9	23.7	26.4	29.4	40.5

자료: 이근 외(2005)중국의 기간산업경제, p121

<표3-2> 중국의 이주문제와 유랑인구

연도	2003		1996		1990		1982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전 체	100.0	1,260.5	100.0	1,246.2	100.0	1,130.5	100.0	1,004.0
등록인구	91.1	1,148.4	94.6	1,178.4	97.4	1,100.8	98.9	992.6
유랑인구	8.9	112.4	4.8	60.0	1.9	21.4	0.7	66
1년 이상 거주, 타 지역등록	7.7	97.3	4.5	56.1	1.8	19.8	0.6	6.4
등록지 떠나 1년 이상거주인 구	0.7	8.6	0.3	3.9	0.1	1.6	0.02	0.2
과도인구	0.5	6.3	0.6	7.8	0.7	8.1	0.5	4.7
해외거주 인구			0.02	0.2	0.01	0.1		
인민 해방군						3.2		4.2

자료: 이근 외(2005) 중국의 기간산업경제 p133

중국 정부가 호구제와 배급제를 사용하여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2003년에 40%를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에 잉여

노동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는 얼마만큼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할까?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합법적인 호구제도에 의해 도시지역에서의 거주를 공식적으로 허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영주권없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을 중국통계에서는 ‘유량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표3-2>에서 보듯이 1990년의 전체 유량인구는 2,140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1년의 840만 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1900년 현재 도시인구의 약 2%가 호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현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1%를 밑돌던 1982년도 구성비율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불과 6년사이에 유량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들어 유량인구는 더욱 급증하였다. 1996년과 2003년의 유량인구가 추정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량인구는 1996년 6,000만명, 2003년 1억 1,220만명으로 10여년 사이에 유량인구 비율이 5배 이상증가하였다. 이것은 최소한 농촌부문에서 1억 1,220만명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풍부한 잉여노동력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FDI가 유입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 실증연구

앞 장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고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두 가지 방법은 수출확대와 유입 FDI이다. 첫째, FDI증가는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을 제조업으로 이동시켜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둘째 수출확대는 잉여노동 활용을 통해 잉여 생산능력을 분출시킨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추정모형

FDI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은 Cobb-Douglas생산함수 형태를 가정한다.

$$Q_t = A^\gamma K_t^\alpha N_t^\beta \quad (4.1)$$

t 는 시간, Q 는 실질생산량, N 는 고용량, K 는 자본이다. α 와 β 는 총소득에서 자본의 분배몫과 노동의 분배몫을 나타내는 파라메타이며 γ 는 생산과정의 능률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임금과 같고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의 가격(c)¹⁸⁾과 같아야 한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Q_t = A^\gamma \left(\frac{\alpha N_t}{\beta} \cdot \frac{W}{c} \right)^\alpha N_t^\beta \quad (4.2)$$

18) $W = A^\gamma K_t^\alpha \beta N_t^{\beta-1} = \frac{\beta Q}{N_t} \dots \text{①}, C = A^\gamma \alpha K_t^{\alpha-1} N_t^\beta = \frac{\alpha Q}{K} \dots \text{②}, K_t = \frac{\alpha}{\beta} N_t \frac{W}{c} \dots \text{③}$

①식을 ②식으로 나누어 K 에 대해서 풀면 이 ③식을 (4.1)에 대입하면 (4.2)식이 구해진다

(4-2)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것을 $\ln N_t$ 에 대해서 풀면 (4-3)식과 같은 기본 고용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Q_t + \varepsilon_t \quad (4.3)$$

$$\phi_0 = -(\gamma \ln A + \alpha \ln \alpha - \alpha \ln \beta) / (\alpha + \beta),$$

$$\phi_1 = -\alpha / (\alpha + \beta),$$

$$\phi_2 = 1 / (\alpha + \beta)$$

ε_t 는 오차항 (disturbance term)이다. 이 식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임금(w/c)과 총생산량(Q_t)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총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용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ϕ_1 의 부호는 음, ϕ_2 의 부호는 양이 예측된다.

여기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3)식을 변형한다. 앞서 지적 하듯이 수출은 잉여분출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같은 수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생산량을 수출량과 국내소비용 생산량 (DQ)로 나눈다. 그러면 (4.3)식은 (4.4)식 처럼 변형된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DQ_t + \phi_3 \ln X_t + \mu_0 T + \varepsilon_t \quad (4.4)$$

수출이 확대될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학습효과나 지식과 정보 획득 등으로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술변화부문을 나타내는 A_t 를 식(4.5)와 같이 가정한다.

$$A_t = e^{\delta_0 T} X S_t^{\delta_1} \quad \delta_0, \delta_1 > 0 \quad (4.5)$$

T 는 시간 추세이며, $X S_t$ 는 수출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수출/생산량 비율로 추정한다. 수출이 기술진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때 노동수요 방정식은 식(4.6)과 같다

$$\ln N_t = \phi_0 + \phi_1 \ln(w/c) + \phi_2 \ln Q_t + \mu_1 \ln X S_t + \mu_0 T + \varepsilon_t \quad (4.6)$$

$$\phi_0 = -(\alpha \ln \alpha - \alpha \ln \beta) / (\alpha + \beta)$$

$$\phi_1 = -\alpha / (\alpha + \beta)$$

$$\phi_2 = 1 / (\alpha + \beta)$$

$$\mu_1 = -\gamma \delta_1 / (\alpha + \beta)$$

$$\mu_0 = \gamma \delta_0 / (\alpha + \beta)$$

수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KS_t 의 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면 수출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자료수집

중국의 실질GDP, 고용인구, 임금에 관한 자료는 중국통계국 인터넷 사이트 www.stats.gov.cn 통해서 1978년부터 2005까지 얻었다. 그런데 고용인구에 대한 자료에서 81년부터 84년까지 자료는 평균증가율 밖에 기록되지 않아 그것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임금자료는 명목임금보다는 7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산된 임금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는 이자율 자료는 최근 10여년 계산된 것밖에 없고 그 이전에서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 거의 금리가 고정되었다. 중국의 이자율은 거의 중앙인민은행에 의해서 고시된 이자율로 금융시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상대가격은 임금지수로만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총무역액, 수출과 수입에 관한 자료는 중국 상무부 인터넷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부표>로 정리하였다.

제3절 실증분석과 해석

1. 추정결과

<표 4-1> FDI가 수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ln GR 경제성장	ln X 수출	ln GR 경제성장
상수	6.627*** (0.000)	3.870*** (0.039)	4.270*** (0.001)
ln FDI	0.426*** (0.001)	0.645*** (0.000)	0.030 (0.859)
ln X			0.669*** (0.002)
R^2	0.808	0.865	0.965
DW	1.330	1.645	1.200

주: *:10%, **: 5%, ***: 1% 유의수준을 나타냄
()는 p value

<표 4-1>는 FDI가 경제성장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GDP와 수출변수(X)에 로그를 취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FDI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그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경제성장과 수출 계수의 부호는 플러스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FDI 유입이 경제성장과 수출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DI의 경제성장과 수출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이 0.1%이므로 99.9%의 신뢰도로 추정치를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FDI가 1% 증가하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0.476%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I와 수출간의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으며 FDI가 1% 증가하면 수출은 0.6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출과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두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한 결과 FDI는 영향이 거의 없고 수출은 0.669%로 더 강화되었다. 이것은 FDI가 중국에 유입되어 대부분 제조업에 투자되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상품들이 수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추정결과로 볼 때 중국에서 FDI와 수출은 중국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표4-2> 고용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ln N_t$ (종속변수)			
상수	1.412 (0.395)	-87.276*** (0.000)	-84.123*** (0.000)
$\ln W_t$	0.058 (0.105)	-0.094 (0.575)	0.046 (0.788)
$\ln Q_t$	0.259*** (0.000)		0.250*** (0.000)
$\ln DQ_t$		0.260*** (0.000)	
$\ln X_t$		0.006 (0.924)	
$\ln XS_t$			0.005 (0.945)
T		0.048*** (0.000)	0.046*** (0.000)
Adj R^2	0.811	0.965	0.967
DW	1.455	1.464	1.376

주: *:10%, **: 5%, ***: 1% 유의수준을 나타냄
()는 p value

<표4-2>에서 추정식 (4.3), 식(4.4), 식(4.6)의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수출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추정식 (4.3)에서 임금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GDP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1%이내 신뢰할만하다. 즉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 고용은 0.2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식(4.4)는 GDP를 국내소비와 수출로 나누고 중립적 기술진보를 알아보기 위해 추세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결과에서 임금과 수출 계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국내소비와 추세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 하였다. 국내소비가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6% 증가하였다. 또한 중립적 기술진보로 매년 0.048% 정도 고용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에 의한 기술변화를 고려한 추정식(4.6)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수출침투지수 (export penetration index)¹⁹⁾와 임금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하지 못했다. 그러나 GDP가 1% 증가하면 고용은 0.250%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중립적 기술진보로 0.047%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DI는 경제성장과 수출, 각각에 회귀분석을 할 때 양의 부호를 갖는다.

둘째,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GDP 증가는 고용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상대임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수출을 고려한 경우, 수출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GDP와 중립적 기술진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해석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후 획기적인 FDI의 유입, 빠른 수출증가 그리고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유입FDI가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수출에 대해서도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FDI와 수출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지고 수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화되었다. 이것은 FDI가 유입되어 제조업에 집중투자되어 제조품을 생산한 후 수출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해외에 유입된 자본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과 결합하여 단순 조립 가공하여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²⁰⁾ 1990년 이후 중국정부는 단순가공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고 기술획득 중심의 해외직접투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공무역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수출과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출은 고용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기술습득도 거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GDP와 추세변수는 고용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조업에 투자된

19) 여기서는 수출침투지수를 총수출액을 GDP로 나눈 값이다.

20) 고정식 외(2000) 현대중국경제 P345

FDI가 중국의 잉여노동력을 고용하여 제조품을 생산하여(GDP 증가) 외국시장에 수출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은 FDI에 의한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출으로 그 생산량을 국제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의 현시점에서 Myint의 잉여분출에 의한 고용효과보다는 Lewis모형에서는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이 제조업부문으로 전환되는 고용효과가 더 실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수출증가, 고용증가등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는 잉여노동이 존재할 경우, 무역확대가 고용증가를 가져온다는 잉여분출설과 제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고용증가를 가져온다는 ‘Lewis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의 경우 개도국으로 잉여노동이 농촌부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경제적 이론의 전제조건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 이론의 경제적 함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은 해외직접투자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은 제조업부문에 흡수하여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만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단순 가공된 제조업 상품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증가는 고용효과가 거의 없으며 수출을 통한 기술흡수와 학습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yint의 잉여분출설과 Lewis 모형을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고용증가를 설명한 결과 현시점에서 Myint의 잉여분출에 의한 고용효과보다는 Lewis 모형에서 처럼 제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변화문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정식 외(2000) 현대중국경제, 서울:교보문고
- 김신행·김태기(2005) 국제경제론, 서울:법문사
- 나카가네 카즈지(1999) 중국경제발전론, 서울:나남출판
- 오용석(2004)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 오용석(2004)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
적 관점에서” 비교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 이근 외(2005) 중국의 기간산업경제, 서울:박영사
- 홍인기(2004)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서울: 박영사
-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2002, 北京: 中國物資出版社
- 中國統計年監 各年度
- 進出口業무편사조(1990) 進出口業務, 北京: 對外貿易教育出版社
- 王紹熙(1990) 中國對外貿易理論和政策, 北京: 中國經濟貿易出版社
- 李志寧(1987) 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2003) 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2003>, 北京:中信出版社
- Fu, Xiaolan (2004), "Export, FDI and Employment Growth in China",
*Ex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Palgrave Macmillan : New York, pp:76-96
- Myint, Hla (1958), "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LXVIII, june pp:
317-37
- Myint, Hla (1958),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Journal*, august, pp:
231-248
- Loi, Cu Chi, (2001), "Migration And The Labour Market in Asia : Recent
Trends and Policies", *OECD Report*

인터넷 사이트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2. Asia Development Bank(ADB), www.adb.org/statistics
3.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www.gso.gov.cn
4.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ww.stats.unctad.org/fdi
5. 중국상무부 www.mofa.gov.cn
6. 중국통계국 www.stats.gov.cn

<부표> 중국 통계

연도	고용인구 (백만)	1인당 (달러)	무역액 (억달러)	수출액 (억달러)	수입액 (억달러)	GDP (억달러)	무역/GDP (%)	임금지수 (77=100)
1978	401.5	212	206.4	97.5	108.9	2044	10.1	106.8
1979	413.1	223	293.3	136.6	156.7	2167	13.5	108.8
1980	423.6	247	381.4	181.2	200.2	2423	15.7	114.1
1981	437.4	228	440.2	220.1	220.2	2276	18.9	109.8
1982	450.1	221	416.1	223.2	192.0	2244	18.2	110.5
1983	463.1	231	436.2	222.3	213.9	2365	18.4	108.3
1984	476.1	228	535.5	261.4	274.1	2357	21.9	113.6
1985	498.7	253	696.0	273.5	422.5	2649	26.3	117.9
1986	512.8	256	738.5	309.4	429.0	2717	28.3	116.6
1987	527.8	272	826.5	394.4	432.2	2934	28.2	109.3
1988	543.3	340	1027.8	475.2	552.7	3722	27.6	119.9
1989	553.3	374	1116.8	525.4	591.4	4164	26.8	110.8
1990	647.5	269	1154.4	620.9	533.5	3073	37.6	110.6
1991	654.9	318	1357.0	719.1	637.9	3678	36.9	109.3
1992	661.5	370	1655.3	849.4	805.9	4341	38.2	115.9
1993	668.1	460	1957.0	917.4	1039.6	5446	35.9	124.3
1994	674.6	424	2366.2	1210.1	1156.2	5082	46.6	134.6
1995	680.7	571	2808.6	1487.8	1320.8	6913	40.6	121.2
1996	689.5	666	2898.8	1510.5	1388.3	8154	35.6	112.9
1997	698.2	730	3251.6	1827.9	1423.7	9020	36.0	104.2
1998	706.4	770	3239.2	1837.6	1401.7	9609	33.7	106.6
1999	713.9	787	3607.0	1949.0	1658.0	9912	36.4	111.6
2000	720.9	853	4743.0	2490.0	2353.0	10800	43.9	112.3
2001	730.3	909	5098.0	2667.0	2431.0	11590	44.0	116.0
2002	737.4	963	6208.0	3256.0	2752.0	12371	50.2	114.3
2003	744.3	1091	8512.0	4385.0	4127.0	14099	60.4	113.2
2004	752.0	1269	11548.0	5936.0	5612.0	16494	70.0	114.1
2005	758.3	1701	14221.0	7623.0	6598.0	22248	63.9	114.6